

PSP, 식생활 변화로 고전에 고전

일본, 상반기 출하량 5만5930톤 ... 12만톤 아래로 곤두박질 가능성

일본의 PSP(Polystyrene Paper) 시장이 저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본 발포 Styrene Sheet 공업협회에 따르면, 2004년 1-6월 PSP(Polystyrene Paper) 출하량은 5만5930톤으로 전년동기대비 5.2% 감소했다.

4월 이후 급격히 감소함으로써 Tray, Laminate 모두 2003년 수준을 밑돌아 하반기 수요에 따라서는 전체적으로 12만톤 아래로 감소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일본의 PSP 출하실적(2004.1-6)

(단위: M/T, %)

구 분	Tray	일 반	소 계	Laminate 용기	Laminate 일반	소 계	합 계
1-6월	24,530	11,610	36,140	14,720	5,070	19,790	55,930
증감률	▽7.2	0.3	▽4.9	0.0	▽19.3	▽5.8	▽5.2

Tray 가운데 도시락 용기, 닛또(일본식 청국장) 용기 등 일반제품은 2003년 수준을 약간 웃돌았으나 야채, 생선 등 신선도를 유지해야 하는 제품의 포장용 Tray가 크게 감소했다.

Laminate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주로 도시락 용기로 사용되는 Laminate 일반용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으로 겹라면 용기를 비롯한 Laminate 용기는 2003년 수준을 유지했다.

PSP는 경량·자원절약형 재료로 단열·보냉효과가 뛰어나 식품포장용 소재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으나 최근에는 전자렌지용 식품 분야에서 PP(Polypropylene) 필러용기, Display 효과가 뛰어난 투명용기나 Low Stack성이 뛰어난 무발포 소재가 점유율을 늘리고 있어 PSP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또 용기포장 재활용법이 시행된 이후 포장자재를 경량화하는 움직임도 출하량 감소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화학저널 2004/09/30>